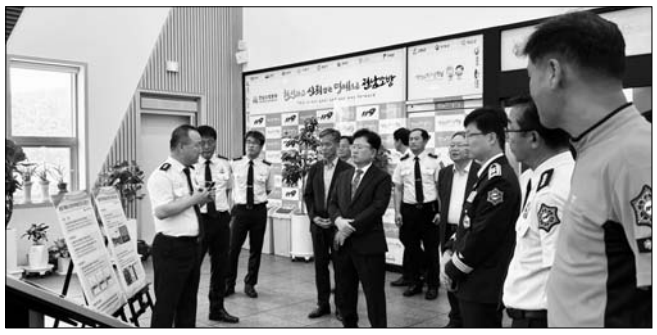
소방과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대응 체계 구축

농진청, 상호 협력체계 구축해 농업인 인명피해 발생 최소화 노력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농업과학원은 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오승훈)와 3일 전라남도소방본부 3층 회의실에서 '농작업 안전사고 신속 대응'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농업기계 사고 발생 시 농업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신속한 현장 대응과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농촌진흥청이 개발·보급한 '농업기계 전도·전복 사고 감지 알람 시스템' 구조신호를 119종합상황실과 연계하는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우선 시범적으로 단말기가 보급된 전남 장흥과 고흥에서 추진한다.

농업기계 전도·전복 사고 감지 알람 시스템은 농업기계 전도·전복 사고가 났을 경우, 농업기계에 설치된 단말기가 사고를 감지, 실시간 사고정보를 관련 기관에 전달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개발한 기술이다.

이와 함께 농작업 사고 관련 구급·구조 자료 공유 및 예방 활동 협력·온열질환 위험 알림 장치 등 농작업 안전 기술 실용화 기반 마련·협력 기관 간 공동 연구회 및 연구발표회, 토론회 개최 등을 약속했다.

나아가 농작업 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농촌에서는 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119 구조 요청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전남 지역 농업기계 관련 연평균 사고 발생 건수는 186건, 연평균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각각 14명, 109명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전남소방본부와의 협업으로 농업기계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노력에도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술을 영농현장에 보급·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경민,과 전북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지역사회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 협력'

탄소진흥원-전북자봉센터, 자원봉사 문화 확산 협약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경민, 이하 탄진원)과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지난 2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본관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탄진원 임직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뜻을 함께하고, △지역 내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개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원봉사 활성화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탄진원은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 조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전주 친환경복합산업단지 환경정화 활동, 지역 축제 행사 봉사, 재난 피해지역 복구 지원, 지역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경민 원장 직무대행은 "전북특별자치도민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공헌활동 또한 공공기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나눔 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사)전북자치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더 다양하고 풍성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협력관계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민선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북은행, '레벨업 실세 특판 예금'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단기 가입 기간에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레벨업 실세 특판 예금'을 3일부터 출시한다.

이번 특판 예금은 앞서 출시한 '6개월 실세금리 특판예금'이 인기몰이를 하며 조기 소진되면서 고객 성원에 힘입어 출시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하는 이번 '레벨업 실세 특판 예금'은 가입기간 4개월과 6개월로 세분화되었다. 4개월에 최고 연 3.45%(기본금리 연 3.25%), 6개월에 최고 연 3.50%(기본금리 연 3.40%) 금리를 제공하며 2,000억 원 한정 판매한다. 가입 대상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일반 법인으로 가입액은 계좌당 100만 원 이상 고객당 20억 원을 한도로 한다.

개인 고객은 신규 월부터 만기일 지 지난달까지 계약기간 1/2 이상 전북은행 입출금통장에서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 실적이 월 1건 이상인 경우 우대금리 연 0.1%를 제공한다.

법인 고객은 신규 익월부터 500만원 이상인 경우 우대금리 연 0.1%가 제공된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청, 산단 기업과 함께한 일자리 홍보 영상 '눈길'

산단 입주 기업과 협력 우수 일자리 홍보 돌입… 새만금청 직원이 홍보 영상 직접 제작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과 협력,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리쿠르팅(일자리 채용) 홍보 영상을 제작·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영상은 학생들이 기업 현장과 조직 문화, 분위기 등을 간접적으로 체감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했다.

최근 학생들이 짧고 간편한 영상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추어 60초 내의 숏폼 형식으로 제작됐으며,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 영상 제작에 참여한 이차전지 기업 ㈜이파캠텍은 대형 카페 같은 사무실, 24시간 라면 맛집 구내식당, 탁구장 등을 중심으로 친근한 기업 이미지를 강조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었다.

특히, 새만금청 직원(백종민 주무관)이 직접 콘텐츠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여 제작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파캠텍 채용 담당자는 "평소 지역 학생들에게 기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새만금청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우수 인재를 확보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한편, 새만금청은 지난 3월 지역 학교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새만금 인력양성 태스크 포스(TF)'를 구성 기업과 학교간의 1:1 매칭 지원,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 산단 근로자 여건 개선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리쿠르팅 쇼츠 영상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보다 친근하게 전달할 것"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경진원, 관리자 리더십 향상 위한 교육 실시

전북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이 3일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군산)에서 관리자 리더십 향상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과장 이상 직급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관리자들의 안정적인 리더십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즉각 대응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마련되었다.

심도 높은 강의를 위하여 30년 이상의 HR 현장경험과 학계의 경험을 보유한, 리더십 분야 최고 전문가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HR전공 신제구 교수를 초빙하여 심도 높은 수준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교육은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른 리더의 역할 변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리더의 역량 강화 △리더십 딜레마와 진화론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진행되었으며,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의와 사례연구, 아티클 학습, 토론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리더십 패러다임의 변화, 다양성과 포용적 리더십, 리더의 메타인지 점검, 저성과자를 조력자로 만드는 방법 등 현업에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리더십 솔루션들을 학습 및 활용해보며 리더십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김옥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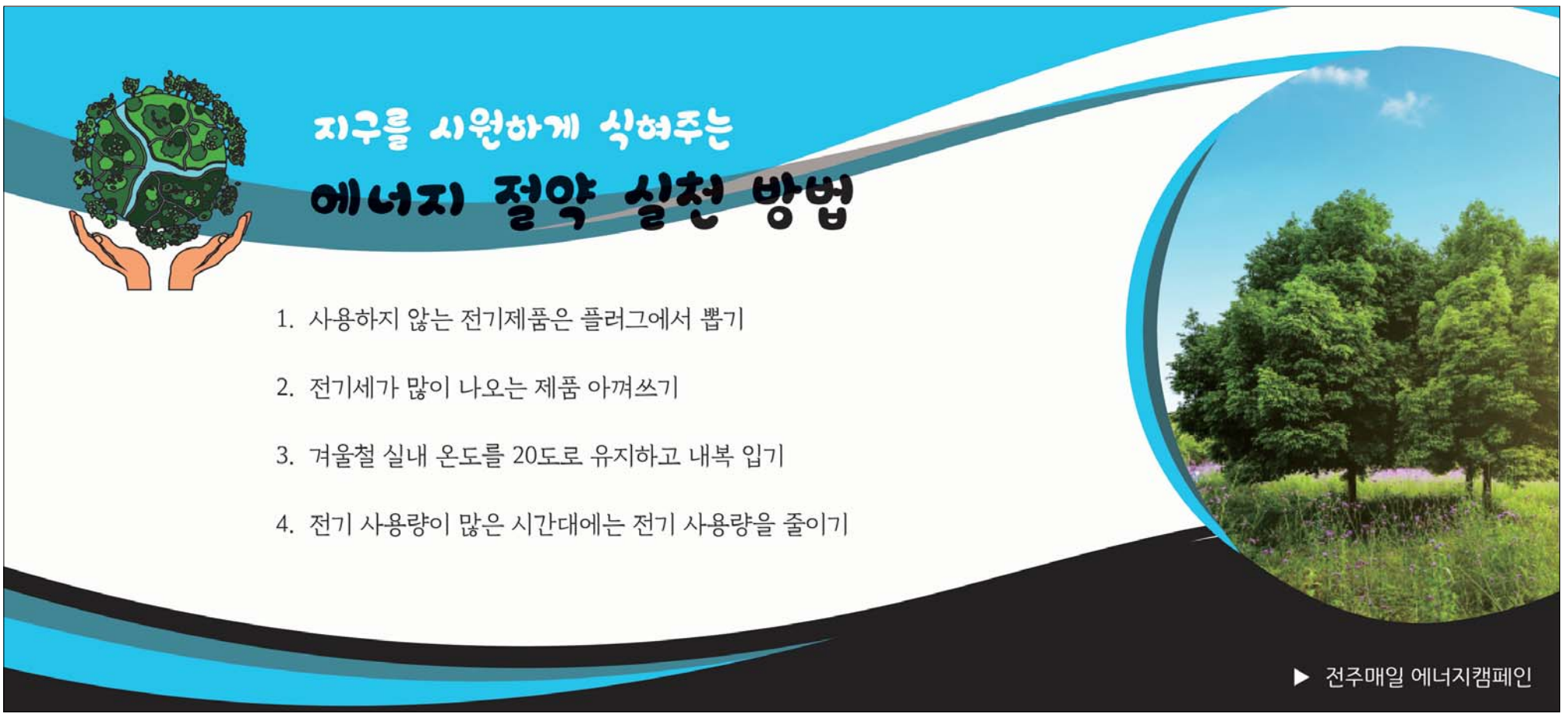
LX공간정보연구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협약 체결

LX공간정보연구원(원장 곽희도)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임상규)이 교육과 연구의 공동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

LX공간정보연구원은 3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자치인재 역량강화 및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곽희도 LX공간정보연구원장과 임상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구와 교육을 통한 지방공무원들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 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공지능(AI)관련 연구·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지역 상생발전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연구원은 이번 협약으로 연구원과 교육생들의 실무 능력과 정책수립 능력이 향상되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희도 원장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업으로 양 기관이 Win-Win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옥기 기자